



파리協約改正 事前會議

—3月 9日 제네바서 開催—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의 改正을 위한 3그룹 調整會議가 3月 9일부터 12日間에 걸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렸다.

파리協約의 改正을 위한 파리同盟外交官會議는 오는 9月 28일부터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4週日 豫定으로 開催키로 되어 있으나 그 회의를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하여 3月 제네바會議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의 3개 그룹이란 이른바 先進工業國, 開發途上國 및 共產主義國으로 나뉘며 이들 멤버의 具體的 會合目的은 基本的인 對立點의 事前調整에 있다.

昨年 2月에는 제네바의 WIPO事務局에서 加盟 82個國이 모여 1個月에 걸쳐 協約改正問題를 協議하였으나 協約改正議決方式만을 決定하였을뿐 아무런 進展이 없었다.

今年에는 9월에 열릴 나이로비회의를 實體規定改正會議로 돌고 가려는 것이 3월회의의 企圖이며 3그룹의 主要 對立點은 産業發展의 程度, 經濟體制의 相異等 이른바 南北, 東西關係에 根基한 것이므로 좀체로 解決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우리라는 展望이다.

그러므로 9월회의를 그대로 연다 해도 작년의 前轍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 儼하리라는 豫測이래 이번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參席者들은 3그룹에서 각각 11人의 代表를 뽑아 제네바에서 33人이 會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秘密會議이므로 그 內容은 確認키 어려우나 대체로

(1) 政府가 特許權을 自由로이 第三者인 實施

權者에게 許與하게 되는 非自發的 排他實施權條項의 新設

(2) 製法特許가 生産物質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規定

(3) 共產主義國들의 普遍的 制度인 發明者證의 認知問題

(4) 地名을 商標로서 使用시키지 않는다는 原產地名稱과 商標의 抵觸問題 등이 主題가 되었으리라는 이야기이다.

微生物寄託特許條約業務 開始

—加盟은 EPO外 7個國—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國際認定條約(BT: 부다페스트條約)이 지난 1月 31日(제네바日時)부터 業務를 開始하였다.

微生物을 利用한 發明의 特許出願에 便宜를 提供하고자 運用될 同機構는 美國이 同機構等의 受託業務를 시작함으로써 發効된 것이며 日本도 同條約을 이용한 微生物發明에 관한 出願을 받아 들이고자 特許法施行令의 改正作業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日本 工業技術微生物工業研究所는 國際寄託機關으로도 認定받게 되어 4月 頃부터 受託業務를 取扱할豫定이다. BT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特許出願節次를 簡素化하는데 主眼을 두고 있는 조약이다. 그러나 BT에 加盟하지 않은 國家들은 미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려면 그 발명의 完成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一定한 寄託機關에 그에 이용한 미생물을 提出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複數國에 特許를 출원하려면 各國의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 BT는 加盟國의 어느 1個所의 기탁기관에 기탁하면 全加盟國에 기탁한 것과 同一한 效果를 갖



게 된다.

이같이 一定條件을 갖춘 기탁기관을 國際寄託機關이라고 하며 이를 加盟國들이 서로 承認하게 된다.

BT는 지난해 8월 19일에 發効하였고 現加盟國은 美, 英, 佛, 西獨, 日, 헝가리, 불가리아 등 7個國이며 政府間機關으로서 EPO가 參與하고 있다.

업무개시와 더불어 運用을 개시한 米생물국제기탁기관은 美國의 ARCC와 ATCC 뿐이며 加맹국은 이들 兩機關이 發行한 寄託證明書에 의거한 米생물특허출원을 受理할 義務를 지니게 되어 있다.

PCT 統一審査問題 協議

—5月中 東京서 第1次會合—

特許協力條約(PCT)의 國際特許協力同盟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日間에 걸쳐 審事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東京에서 會合한다.

會同目的은 PCT加盟各國의 國際調査機關이나 國際豫備審査機關의 調査 및 審査基準의 統一에 있으며 PCT의 이러한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PCT에의 現加盟國은 30個國이며 技術先進國은 모두 加入되었고 PCT의 終局的인 目標은 世界 統一特許法의 實現이다.

PCT는 世界各國의 特許出願節次를 통일하여 發明의 國際的 交流促進과 이에 隨伴한 保護의 圓滑化가 現在의 目的이며 그 利點으로는 出願節次가 便利하다는 것 외에도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調査·審査報告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指摘된다.

그러므로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一定한 條件이 갖춰진 PCT加盟國들의 特

許廳이 擔當하되 그 內容은 先行技術의 有無調査報告등이다.

이 보고는 出願人이나 特許許與要求加盟國(指定國)의 國內特許廳도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特許出願繼續 또는 特許許與適否與否를 判斷하는 資料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業務運用에는 그 方法등의 統一性이 確然치가 않아 이번에 審査問題에 관한 第1次 東京會議를 開催하게 된 것이다.

美國 UPOV受諾書寄託

—1980. 11. 12日字—

美國政府는 1980年 11月 12日 國際新種植物保護協約(UPOV)受諾文書를 寄託하였다.

受諾文書寄託과 더불어 美國은 WIPO事務總長에게 異形의 同屬 또는 同種의 保護와 관련하거나 特許許與基準과 正常的으로 無性再生된 植物變種에 適用할 수 있는 保護期間 등을 勸索하여 協約 第37條(1)(2)項의 規定을 適用한다고 通告하였다.

同協約은 第33條(1)項에 의거하여 批准國, 受諾國, 承認國, 또는 加盟國數가 定足數에 달할 때 發効公告될 것이다. (WIPO 提供)

뉴질랜드 UPOV批准書寄託

—1980. 11. 3日字—

뉴질랜드政府는 1980年 11月 3日 國際新種植物保護協約(UPOV)批准書를 寄託하였다.

1961年 12月 2日 調印되고 1972年 11月 10日과 1978年 10月 23日 두차례에 걸쳐 各各 제네바에서 改正된 同協約의 發効日字는 協約第33(1)에 의거하여 批准國, 受諾國, 加入國 또는 承認國數가 定足數에 達할 때 公告될 것이다.



特許·實用新案出願 急増

—日, 昨年中에 23,000件이나—

지난 80年中 日本特許廳에 出願된 特許 總件數는 191,020件, 實用新案은 191,785件으로서 發明考案 總出願만도 382,805件에 이른다.

이로써 特許는 前年보다 16,451件, 實用新案은 6,330件이 增加하였으며 이같은 急増의 原因은 企業들의 獨創的 技術開發意慾의 提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日本 特許廳은 出願急増對備策으로서 審査促進을 위한 機械化選擇出願 및 審査請求의 選別化를 계속하는 등 출원의 適正化施策에 注力할 方針이다.

나아가서는 實用新案制度의 改廢등 抜本的인 對應策도 構想中이다.

國際的科學技術開發體制

—印度, 總理直屬委등 構成—

昨年 7월에 自力으로 人工衛星을 發射한 印度는 國際的인 技術時代에 對處하여 綜合的이고 効率的인 科學技術行政體系의 整備와 에너지危機 打開을 위하여 代替에너지技術開發體制를 推進中이다.

그 具體的인 方案으로는 4月頃부터

(1) 總理諮問委員會로서 科學審議會를 設置하여 國家的인 科學技術計劃을 策立및 調整하고

(2) 代替에너지委員會를 新設하여 太陽熱, 바이어마스의 利用開發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工業所有權國際機構·同盟現勢(1981.1.1)

1.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韓國등 95國

2. 國際工業所有權保護同盟(파리同盟): 韓國 등 89國
3. 國際特許協力同盟(PCT同盟): 美國등 30國
4. 國際特許分類同盟(IPC同盟): 美國등 27國
5. 國際商標登錄同盟(TRT同盟): 蘇聯등 5國
6. 마드리드商品出處虛偽表示防止協定國: 英國 등 32國
7. 國際標章登錄同盟(마드리드同盟): 西獨등 25國
8. 商標登錄目的을 위한 商品및 서비스國際分類同盟(니스同盟): 美國등 32國
9. 商標要部國際分類確立에 관한 비엔나協定國: 西獨등 19國
10. 國際意匠寄託同盟(헤이그同盟): 프랑스 등 17國
11. 工業意匠國際分類同盟(로카르노同盟): 美國등 16國
12. 原產地呼稱保護 및 國際登錄同盟(리스본同盟): 프랑스등 16國
13.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國際承認同盟(부다페스트同盟): 美國등 8國
14. 國際新種植物保護同盟(UPOV): 英國등 12國
15. 特許出願書樣式에 관한 유럽協約(유럽評議會): 스페인등 5國
16. 유럽特許機構(EPO): 西獨등 11國
17. 아프리카知的所有權機構·佛語圈(OAPI): 베닌등 12國
18. 英語圈 아프리카工業所有權機構(ESARI-PO): 가나등 9國
19. 國際科學的發見記錄에 관한 제네바條約國: 蘇聯등 5國

(WIPO 提供)